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천 날보다 좋은 하루

(시편 84:1-12)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성도는 오래 살기보다
바르게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원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본편은 '깃땀'에 맞춘 노래로 '깃땀'은 즐거운 가락을 말합니다. 이 시는 환희의 찬송으로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에 의해 씌어진 것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으로서 모세를 거역하다가 죽었으나 그 자손은 살아남아 후일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대상 9:19).

이 시는 성전에 거하며 봉사하는 자의 행복(1-4절), 성전 순례자의 행복(5-9절), 주께 의지하는 자의 행복(10-12절)을 주제로 3부로 나뉩니다.

천 날이면 약 3년의 세월로 이 시간은 인생의 중요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생을 길이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병상에서의 천 날보다 건강한 한날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한 천 날은 일상적인 천 날을 말합니다. 반면 시인이 좋다고 한 하루는 '축제의 날'을 말하며 일상적인 천 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루입니다.

이 시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는 삶의 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행복이 무엇이고 바르게 사는 인생이 무엇이며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주님의 전에 거할 때 하루가 천 날보다 좋다(1-4절)

'주의 장막', '여호와와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은 모두 성전을 의미하는 말로 시인은 성전을 사모한 나머지 그 영혼은 애가 타고 마음과 몸은 쇠약해져 하나님을 향해 환성을 지릅니다.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성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최상의 복락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생각하며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흠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마음과 육체가 쇠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마음과 육체'란 인간 전체를 말합니다. 지, 정, 의, 즉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주의 전에 거할까? 하나님을 사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 만군의 여호와로 섬기는 자가 주의 전에 거할 수 있습니다. 환란의 때에도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2. 시온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삶은 하루가 천 날보다 좋다(5-9절)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이나 성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전에 거하는 자도 복이 있지만 원근각처에서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자 역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입니다(사 40:31). 그

시온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은 고통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노력하며 시온을 향해 나아가면 눈물 골짜기가 샘의 골짜기가 될 것이고 메마른 곳에 생명의 "뿤" 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이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기쁨과 힘을 얻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중에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피곤한 일만은 아닙니다. 땅에서 수고해야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루를 살아도 천 년을 사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3. 주께 의지하며 사는 하루가 불신앙의 천 날보다 좋다(10-12절)

사람은 누구나 장수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구차하게 천 날을 더 살기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궁정은 화려한 궁궐이라기보다 성전 바깥 뜰을 말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세속에서의 천 날보다 비록 늙고 병들어도 주님의 전 뜰에서 하루를 배회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10절)은 잠깐 있는 거처로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질투와 다툼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곳이 호화롭고 쾌락을 주고 안일을 준다 해도 시인은 차라리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합니다. 문지기는 문지방에 앉은 자, 공적 장소에서 구걸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도는 오래 살기보다 바르게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원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집에 오기를 원하나 병들거나 또는 피치 못할 이유로 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행복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12절). 주님과 교제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의 한 날의 삶은 주를 떠난 천 날의 삶보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날을 살아도 바르게 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며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제3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개강 준비 시작

3월31일(월) 오후 2시 개강

주제: '현대 사회 속에서의 교회(신앙) 교육'

서울교회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한국교회 갱신연구원(원장 이종윤 목사)이 주최하는 제3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일정이 확정되어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번 목회자신학세미나는 3월31일(월) 오후 2시 서울교회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개강하여 6월 2일(월)까지 10주간 계속된다.

이번학기의 주제는 '현대 사회 속에서의 교회(신앙) 교육'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제인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 10:10)와 연계된 주제로 정해 모든 교회에서 안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진단 및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준비될 예정이다. 교회 부흥이 절

실한 모든 개교회들에게 만나와 같은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교시는 지난 학기에 이어 이종윤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지고 2교시는 분야별 주제에 의해 권위 있는 외부강사의 강의가 이어지게 된다.

매학기마다 강의실(웨스트민스터 홀)이 차고 넘치는 은혜 중에 진행되어지는 목회자신학세미나가 금번 33학기에 또 동일한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한다.

한편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교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기독교공보(통합) 등 교계신문에 금주부터 광고를 게재하고 브로슈어를 제작, 회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제3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일자	제1교시	제2교시 강의제목	강사
03월31일		한국 개화와 교회 교육	손영원 교수(서울기독교대학)
04월07일		학교 교육과 교회의 신앙교육	정일용 교수(총신신대원)
04월14일	(오후 2:00-3:30)	한국인(기독교인)의 교육에 대한 의식과 신앙교육	이숙경 교수(아세아연합신대)
04월21일		교회학교 교사 교육과 실천	한미라 교수(호서대학)
04월28일	마태복음 연구:	유아교육과 학부모 신앙교육	박신경 교수(영남신대)
05월05일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공휴일	
05월12일		공휴일	
05월19일		청소년의 심리와 중·고등부 학생 신앙교육	양금희 교수(장로회신학대학)
05월26일		청년(예배)문화와 신앙교육	차명호 교수(부산 장신대)
06월02일		장년을 위한 평생교육과 그 실천	권순택 교수(그리스도 신대)

교육1국-겨울성경학교

2월18일(월)-19(화) 서울교회에서

2008년 교육1국(국장 서문석 장로) 어린이들의 겨울성경학교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친구의 생명을 품는 어린이'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부터 초등부까지 어린이들이 친구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는 어린이들로

자라나도록 가르친다.

겨울성경학교 강사로는 각 교회학교 지도 교역자들이 수고하게 된다. 따스한 봄날을 앞두고 우리교회 어린이들이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친구를 전도하는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인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8기 단기선교단, 8월4일(월) 파송키로

우리교회가 매년 여름철에 복음의 불모지에 파송하는 단기선교 금년도 대상 국가는 '신비의 땅' 인도이다. 수많은 우상에 매여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도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인도 단기선교단(단장 이영기 장로)은 8월 4일(월)부터 13일(수)까지 9박 10일간 "인도의 영혼을 그리

스도께로!"(Mission to India, the Land of Secret)를 표어로 인도 푸네 등지에서 현지 선교사와 연계하여 선교활동을 펼 예정이며 예상비용은 약 200만원(항공료, 숙박, 선교비용 등)이며, 전액 자비량이다.

인도 단기선교단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3월 9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신청하기 바란다.

대학·청년부 젊은이들의 참여를 권장한다.

이종윤 목사 T.V 방송설교 농인을 위한 수화통역 시작



우리교회는 국내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종윤 위임 목사의 주일 설교를

녹화하여 CTS TV와 CBS 인터넷 방송 등에 매주 일내보내고 있다. 그 동안은 건청인(健聽人)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동영상 방송이어서 농인들은 우리교회의 은혜로운 주일설교를 들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교회는 농인들도 이종윤 목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화면에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실시간으로 수화통역을 하는 장면을 삽입하여 건청인과 농인이 함께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통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경 일천독 대장정 오늘로 마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

- <15독>(12교구)김경철 장로 <7독>(8교구)김인식 권사
- <영어필사>(12교구)송성식 집사 <필사>(12교구)윤갑숙 권사
- <2독>(3교구)박이선 집사 (12교구)김광신 장로 이상호 집사 장덕 집사 (14교구)김석봉 집사
- <1독>(1교구)고은옥 성도 김선애 집사 김정숙 집사 김해영 집사 김형희 집사 김희옥 집사 박경진 성도 신규철 집사 유봉현 성도 이경혜 성도 이윤미 성도 이은신 성도 임우택 집사 정수현 성도 지영순 집사 (2교구)배정자 집사 이동만 집사 이은자 집사 이화진 집사 이화진 집사 조미환 집사 (3교구)김형상 집사 박정수1 집사 우지원 집사 윤성남 집사 이경희8 성도 이동구 집사 정선경 집사 (4교구)강영자 권사 고윤화 권사 권혁달 집사 김훈 집사 김경희 집사 김광태 집사 김금복 권사 김성철 성도 김영란 권사 김운석 집사 김해아 집사 김해숙 집사 나연신 집사 박길순 집사 박명희 집사 변만중 집사 서명희 집사 손태기 집사 윤정희 집사 이수경 권사 이학명 집사 장은정 집사 장효옥 권사 정천수 집사 조보환 권사 조은식 집사 조희준 성도 최근정 집사 한종표 집사 (5교구)백송희 성도 유명신 집사 유수진 성도 임명자 현동집사 장문경 성도 최광혁 집사 최미아 권사 홍지민 집사 (6교구)김송배 집사 유태서 집사 (7교구)윤도희 집사 장인우 집사 (8교구)서영희 권사 한춘홍 권사 (9교구)김세림 성도 김숙화 집사 김영숙 성도 석은정 집사 심상필 권사 이기근 집사 아미라 성도 이성훈 집사 이영훈 집사 이은남 성도 정철환 집사 (10교구)유보영 집사 이후경 성도 (11교구)송미자 집사 송희숙 집사 이완선 성도 (12교구)김성준 집사 김용호 집사 김윤수 성도 김형택 집사 송성식 집사 위성남 권사 이근대 집사 정경옥 집사 조근아 성도 홍희순 집사 (13교구)김규순 집사 박선영 성도 배승우 집사 소은희 성도 양호선 집사 원세경 집사 원세경 집사 유영희 집사 유재숙 집사 이상은 집사 이정희 집사 이태민 집사 이현승 집사 장문경 성도 장은영 집사 정완진 집사 한혜경 집사 황종택 집사 (14교구)고경순 집사 박금래 집사 박동휘 집사 박수옥 집사 윤영숙 집사 정수주 집사 정재환 집사 한광마 집사 한광마 집사 (교동부)유한영 이성화 (대학부)구진경 박한샘 백태훈 양혜선 유현주 이하나 임효석 황선영 (유년부)김영비 김지수 홍현기 (중등부)김도형 김도형 김정수 김지옥 서세준 이명찬 (청년부)구진영 김지홍 이태주 조종화 최수정 (초등부)김민선 김민선 이미현 정서우 정승우 최유정 홍원영

신임교역자 소개 - 죠슈아 조 목사

서울교회는 역동적인 교회

지난 1월, 영어예배부 지도 목사로 부임한 죠슈아 조 목사님은 74년 출생, 75년 부모님을 따라 미국 이민을 가 졸업 미국에서 성장한 이민 2세대이다. 갓난아기 때 미국으로 건너가 마침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고국에 돌아온 것이다.

미국 동부 뉴저지에서 유년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조 목사님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며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처음엔 신학 교수가 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신학을 깊이 공부하면서 서서히 목회에 마음이 기울어졌고 졸업할 때쯤에 소명 의식을 강하게 느끼며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한 조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자신이 성장한 교회에서 2년간 부목사로, 그 후 애틀랜타로 건너가 한인교회의 영어예배를 지도 하던 중 서울교회에서 영어예배 지도 목사를 찾는다 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조 목사님은 서울교회가 정통 보수주의에 입각한 교회이고, 이종윤 목사님이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회자임을 알고 주저함이 없



이 서울교회에 지원서를 냈다. 보수와 복음은 조 목사님 자신의 신학의 가장 큰 이슈이고, 그가 미국의 수많은 신학교 중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간 가장 큰 이유도 정통 보수주의 때문이었다.

조 목사님은 이종윤 목사님에 대해 깊은 신학과 더불어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 하며 언젠가는 그런 종 밑에서 훈련 받기 원했던 자신의 기도가 응답 받았음에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한다. 그는 이 목사님과 같은 분은 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목회자라고 말하며 자신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또 조 목사님은 현실적으로 바쁜 교회는 수없이 많지만 진정한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땀 흘리는 교회가 드문 가운데 서울교회는 진정한 복음 때문에 바쁜 매우 역동적인 교회라는 첫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조 목사님은 서울교회 영어예배에 관한 웹사이트를 곧 개설할 예정이며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학원가라든가 외국인 회사에 적을 둔 외국인들을 교회로 이끌어내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하며, 성도님들께도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영어예배로 인도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죤슈아 조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시절 함께 공부하던 사모님과 결혼하여 슬하에 엘리야, 노아, 갈렙 세 아들을 두고 있다. 모쪼록 목사님과 가족들이 고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바라며 영어예배의 발전과 부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허 숙 (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비전2020운동

군인 정신은 십자가 정신

정영남 중령(국군대전병원 간호부장)

자녀들을 군에 보낼 때에는 사람이 달라져서 오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자녀의 수가 적어지면서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30년간 군에서 군인 환자들을 돌본 저로서는 군인정신이 점차 줄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월 13일 주일, 간호사관학교 기독교생도 부장을 맡고 있는 저는 서울교회에 초청을 받아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입구에서부터 여러 장로님들께서 명찰을 달고 우리를 영접하시며 계획된 순서와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일정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반겨주셔서 우리는 이곳저곳 둘러보며 어느새 편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녁 찬양 예배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군부대를 초청하여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특별히 준비된 앞 좌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들이 성심으로 교회를 섬기신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교회에서 성장하여 음악가로 거장이 되신 분들이 나와 찬양발표 하는 것을 들으며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셨구나! 찬양 이라고는 기타, 드럼, 피아노 정도로만 들던 우리에게 영으로 부르는 찬양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23사단, 706특공, 3사단, 육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에서 온 초청 부대 소개와 특송 찬양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간호 사관학교 생도들도 순서에 따라 큰소리로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하였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하신 음식을 먹으며 환대를 받아 자신감도 생기고 뭐라고 표현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느꼈으며, 이젠 내가 먼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 복음을 전하고, 죽어 가는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도전을 받았 습니다.

그때 한 분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속해 있는 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곧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하며 '결혼식 전에 성경 일독을 하고 시집오라'고 하셨다고 해서, 돌아와 그 간호장교에게 물어보니 이미 성경 1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군대전병원 기독 간호장교와 기독 간부들은, 우리도 금년에 성경 일독을 하고 다 마친 간부들에게는 상품을 주는 행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인 정신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군인정신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래야 군대가 살고 젊은이가 살고 나라가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군선교 VISION을 품고 기도하며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파송예배를 주관해 주셨는데, 예수이름으로 거듭난 한 간호장교의 현장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이제는 간호사관학교 생도들 입관식에도 파송예배를 주관해 주신다고 하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 간호 장교들과 간부들도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십자가정신,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28일
국군 대전 병원 군 선교 현장에서

천국시민양성 - 성경 100독을 마치고

성경 100독을 마치고...

김경철 장로(12교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9년, 선배되시는 윤 모 장로님(당시 80세)께서 즐기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워주셨습니다. 권고의 말씀인즉 "김장로는 금년에 은퇴하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몇 독이나 했느냐."고 물으시고 "나는 금년까지 100독을 마쳤어요." 하시면서 "70세 은퇴니까 70독 이상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한심한 생각까지 들어 "윤장로님,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는 흔히 하는 말로 "하루 세 끼 밥은 먹으면서 하루 성경 3장은 읽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였지만 막상 그때 "너는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라는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저를 질책하셨습니다. 선배 장로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심으로 믿고 "윤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

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 그 해 12월말까지 5독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윤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잘했다."는 칭찬과 아울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계속하여 2006년까지 읽어오다가, 작년(2007년) 우리교회에서 '성경 일천독 대장정'이 시작되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더욱 힘을 얻어 작년 한 해 동안 무난히 15독을 하고 보니 지난 9년간 합산하여 99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1독을 더하니 "성경 100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어 되어진 것임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자나깨나 기쁨은 넘쳐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느라 주님이심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교우 여러분,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심을 알진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는 체험적 믿음의 형제 되시기를 감히 권면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테너 이정환 선생 초청 순서를 갖는다.

이정환 선생은 연세대학교 및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동아 음악콩쿨에 입상 한바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 오페라극장 주역 가수를 역임 하였으며 오페라 리골렛, 라트라비아타, 등에 출연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와 안양 대학에 출강 중이다.

오늘 저녁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S.Liddle 곡) 외에 두 곡으로 찬양 드린다. 다음 주에는 국립합창단 이중창팀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18일(월) 한국 기독교 학술원 이사회에 참여한다. 22일(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한국 동문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이갑진 장로(12교구): 2월11일(월)-21일(목)까지 캄보디아와 미얀마 군선교 사역차 출국 하였다.

■ 득남: 12교구 홍순곤 집사 박은정 성도
12교구 김정훈 성도, 오승혜 성도

■ 주간식당 봉사: 바울 선교회(2.17) 엘리야선교회(2.24)

■ 금주의 식사 : 이민화 권사 노문환 장로 장정화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2008농어촌100교회운동지원현황 (다음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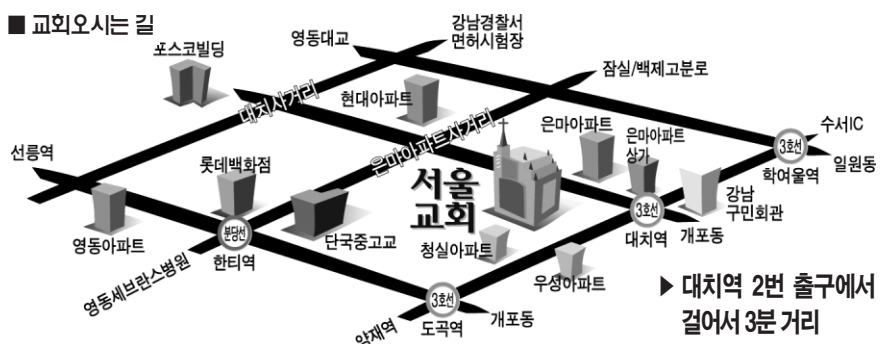
노회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구좌(각)
강원노회	고한남부교회	방은근 전도사	새가족부, 가브리엘찬양대, 박태성, 박정자	1
	춘천동산교회	김창부 목사	빌립, 안드레, 베드로, 바울, 도르가, 뵤비 루디아, 마리아	1 2
	서흥교회	김광근 목사	에스더, 한나, 사라	2
	도촌교회	김병곤 목사	엘리아, 교역자회 모세, 아브라함	1 2
목포 동노회	모도교회	한정배 전도사	제1스데반	5
	송광교회	김상도 목사	방승희, 제1권사회, 정인주 신도섭, 시은찬양대, 백종명, 최상균	1 0.5
	청산동부교회	박형석 목사	박명철, 이인숙, 오형숙, 한경석 제2권사회 문동진	0.5 2 1
전서노회	북면중앙교회	김주철 목사	최상균 한승립, 오윤걸(오명걸), 정필영	0.5 1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8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3. 사랑의 집 터를 속히 보여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4. 농어촌 미자립 교회 100교회 운동후원과 비전2020운동 후원자가 많이 생기게 하소서.
5.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